

# 장광 “인생작 ‘도가니’ 딸과 함께 연습했어요”

### 영화·드라마·예능 중횡무진 활약 개그맨 딸과 ‘내 딸의 남자들’ 출연 최우선 과제는 “딸 미자의 결혼”

“아버처럼 고생만 하다가 예순 다 돼서 성공하는 건 꿈 짝하다고요.”(미자)

“젊을 때 전성기 누리면 뭐하나, 나이 먹고 비참할 수도 있는데, 늙어서 바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나.”(장광)

영화, 드라마는 물론 딸과의 예능까지 중횡무진으로 활동하며 ‘60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된 배우 장광(66)과 그의 딸 개그맨 겸 MC 미자(본명 장윤희·34)를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1969년 연극배우로 데뷔하고, 1978년 DBS에 성우로 입사해 다양하게 활동한 장광이 대중에 각인된 계기는 2011년 영화 ‘도가니’였다.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악역으로 관객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그는 이후 쉬지 않고 굵직한 영화와 드라마에 참여했다. 최근만 해도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드라마 ‘화유기’, ‘크로스’, ‘작은 신의 아이들’ 등에 연이어 출연했다.

장광은 “워낙 체력이 좋기는 한데, 최근 참여한 작품들은 ‘사건사고’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아 재촬영을 하느라 비겁긴 했다”며 “tvN ‘어바웃 타임’에 몇 회 출연하는 것이 끝나면 조금 쉬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자는 “워낙 잘 드시는 게 체력의 비결”이라고 귀띔했다.

주로 악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소화하면서 각 캐릭터가 다르게 보이도록 연기하는 장광은 비결을 묻는 말에 “그저 작품 분석에 충실할 뿐이다. 그러다 보면 변화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얼굴만 보면 선한 장광인데, ‘도가니’ 속 인면수심 교장 형제 역은 그의 연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그리고 그 연기를 소화한 데는 딸 미자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악인 연기란 게, 노력보단 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건 아닐까요? (웃음) 성우 때부터 악역을 많이 하긴 했죠. 악역을 해야 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악역을 하나 끝내면 희열도 느껴지고, 산을 넘은 느낌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도가니’는 심지어 쌍둥이 연기여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딸과 컴퓨터로 녹화하며 연습했죠.”(장광)

“아버지가 악역을 연기한 초반 2년은 매년 그렇게 컴퓨터로 찍어드렸기에 익숙해요. 그래도 ‘도가니’ 연기는 정말 충격이었죠. 아빠가 싫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 맞으실까 봐 걱정됐죠. 이후로는 재밌게 하세요. ‘오늘은 목 목았어’, ‘차로 받고 왔어’, ‘골프채로 두들겼어’ 같은 후기를 남기시죠. (웃음)”



배우 장광(왼쪽)과 개그맨 미자 부녀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광은 수많은 작품에 참여했지만 아직 도전하고 싶은 연기가 있느냐는 물음에 “배우들의 로망은 멜로 아니겠냐”며 “장년 멜로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바웃 타임’에서 김혜수 씨와 약간의 로맨스가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정말 이상한 작품이 아니라면 다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미자는 “아버지가 한번은 중년 멜로처럼 포장된 예로 영화를 제안받은 적이 있는데 계약하기 직전에 베드신이 있는 것을 알았다. 예로, 불륜 이런 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실 세 없이 바쁜 틈에서도 장광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미자의 결혼이다.

E재널 예능 ‘내 딸의 남자들’ 시즌2에서 배우자 찾기에 도전한 미자는 결국 연애가 먼저임을 깨닫고 시즌3에서는 진정한 사랑 찾기에 나섰다.

장광은 “결혼도 서로 감정 교류가 있어야 정이 생기고, 애정도 싹트고 하는 것”이라며 “전 그렇게 조금만 없애다. 제가 아내(배우 전성애)와 만났듯 미자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또 “전 조건보

자연스러운 정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배우자는 50m 안에서 만난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자는 “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싶다”며 “사실 ‘내 딸의 남자들’ 새 시즌에 나오는 것을 망설였는데, 그래도 후식 운명이 있을까 해서 한 번 더 도전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남자를 괜찮다고 하셔서 문제”라고 말했다.

미자는 연극, 성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오간 아버지처럼 개그맨과 MC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활동하는 게 꿈이다.

장광은 “딸은 보통 고집이 아니지만 뭐든지 꼭 부러지게 잘 해내니 믿게 된다. 하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성격에 평소 딸과의 관계는 ‘적과의 동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웃었다.

미자는 “아빠는 티격태격하는 친구”라며 “제가 뭔가를 고집부리면 반대하시다가도 결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니 늘 든든하다. 제가 늘 ‘장광의 딸’로 불렸으니 이제부터는 아빠가 ‘미자 아버지’로 불릴 차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백원택시 나들이에 나선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할머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도 할매 ‘백원택시 나들이’ 전국 방송

### TBN광주교통방송 내일 오전 10시 6분

TBN광주교통방송은 오는 9일 오전 10시6분 지역특화 다큐멘터리 ‘남도 할매의 백원 택시’(연출 이진아·구성 정인숙)를 전국 방송한다.

100원이면 탈 수 있는 ‘백원택시’는 버스가 가지 않는 전남의 ‘교통오지’ 주민들을 가까운 버스정류장이나 면소재지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 2014년 시작된 백원택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꼽혀 82개 군으로 확대돼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TBN광주교통방송은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할머니들의 ‘백원택시 나들이’를 통해 취재했다. 읍에 장이 서는 날, 병원 진료받는 날, 자식 보러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할머니들의 발 역할을 해주는 백원택시에 담긴 사연을 들어봤다.

고령화 사회 농산어촌 교통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교탄시 탄고초 마을의 ‘사사ैया이 교통’ 사례도 살펴봤다. 광주·전남 주파수 FM 97.3MHz(전남 동부권 103.5MHz).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개봉 12일째 800만 돌파

### 외화 최단 기록 경신...전 세계 누적 수입 10억 달러

‘어벤져스’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이하 어벤져스 3)가 개봉 12일째인 6일 누적 관객 수 80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어린이날인 5일 82만879명을 동원해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 775만9천104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이날 오전 9시까지 27만6천252명이 추가 관람해 누적 관객 수는 803만5356명으로 늘었다고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밝혔다. ‘어벤져스3’는 역대 국내 개봉 외화 최장 시간 동안 누적 관객 800만 명을 돌파한 영화가 됐다.

앞서 ‘어벤져스3’는 개봉 2일째 100만, 3일째 200만, 4일째 300만, 5일째 400만, 6일째 500만, 8일째 600만, 11일째 7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이는 모두 역대 개봉 외화를 통틀어 최단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어벤져스3’는 5일 기준 전 세계 누적 수입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역시 역대 최단 기간 기록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헬스들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MBC UHD 단막스페셜 (미치겠다, 너땀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복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1%의 우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25 생생정보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2018 가정의 달 특집 앙코르 휴먼다큐 사랑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한국인의 밤상(재)	00 1대 100(재)	20 가자! 낭만 고향	55 닥터 365
2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10 색으로 만나는 모로코. 황도빛의 모로코 55 프리라라 3	00 뉴스브리핑
3	05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55 섹션 TV 연예통신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제보자들(재)		00 고향건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헬스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기획 창 <나는 결백하다> 55 UHD 숨터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MBC UHD 단막스페셜 (미치겠다, 너땀에!)	00 기쁨진 멜로
11	00 KBS 뉴스라인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허룻밤만 재워줘	10 PD수첩 (민간인 학술 읽어버린 10년)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어버이날 기획 특별영화관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15 파프리카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지중해 탐기행 2부 지중해 솔로루 푸드)	09:40 장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담심산적과 파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냉장고 나라, 코로롱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0:40 세계대기행 (오만 가지 매력 오만 2부 사막의 배두인)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대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3:00 다큐 오늘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마사와 곰	21:30 한국기행 (시골식당 2부 오지다 영산도)
06:20 세계대기행(재)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디스코 챔피언, 불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특!톡! 보너스나니~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21:50 EBS 다큐프라임 (머니의 강, 매공 2부 문화를 잇다한 강)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2:45 우리만 이렇가 23:55 짝치미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4:45 지식채널e 24:50 한국영화특선 (김씨 표류기)
07:45 출동! 슈퍼월드2			
08:00 당동당 유치원1~2			
08:30 허름선이 과학소(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뽕치미(재)		
09:00 언키트	14: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8일 (음 3월 23일 庚子)

<p><b>子</b></p> <p>36년생 확실하게 한계를 그어라. 48년생 줄기찬 노력이 성공을 앞당길 것이다. 60년생 엄매이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72년생 제3자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84년생 발난 것을 접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87</p>	<p><b>丑</b></p> <p>37년생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49년생 참신한 발상이 요구된다. 61년생 예상치 못한 번민에 휩쓸릴 수 있다. 73년생 현실의 역경에 순을 한다면 미래의 결실은 늘어난다. 85년생 다물어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 48</p>
<p><b>寅</b></p> <p>38년생 굳이 감출 필요가 없으니 투명하게 임하라. 50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다. 62년생 소신껏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수습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86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지출을 최소화하라. 행운의 숫자 : 20, 76</p>	<p><b>卯</b></p> <p>39년생 알면서도 소을 한다면 약화 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51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63년생 심기가 불편한 판도가 역력히 보이느니라. 75년생 잠시 주춤했다가 분개도로 진입 하라. 87년생 실제적인 부분에 시간 할애를 잘 하라. 행운의 숫자 : 75, 25</p>
<p><b>辰</b></p> <p>40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가자. 52년생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64년생 시끄러운 문제가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 76년생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88년생 승통이 타지면서 자생력이 커진다. 행운의 숫자 : 12, 18</p>	<p><b>巳</b></p> <p>41년생 순차적인 계획의 실현이어야 한다. 53년생 오만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65년생 노고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동시에 이다. 77년생 매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 되리라. 89년생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양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63, 01</p>
<p><b>午</b></p> <p>42년생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발다른 문제점이나 이익이 없다. 66년생 내버려둬도 스스로 정리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78년생 길지로 향하는 면모다. 90년생 성사의 기미를 띠고 있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60, 54</p>	<p><b>未</b></p> <p>43년생 귀한 이가 떠나거나 귀중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 55년생 곤란한 처지이다. 67년생 파나 속상할 일이 생길다. 79년생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91년생 미로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길을 찾게 되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97, 40</p>
<p><b>申</b></p> <p>44년생 무조건 수용하고 볼 일이다. 56년생 변화 가능성은 열여 두되 초과할 필요는 없다. 68년생 피하러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80년생 바람직한 방향인지 진로를 확인 해 보자. 92년생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38</p>	<p><b>酉</b></p> <p>45년생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될 것이다. 57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라. 69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 속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81년생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93년생 바로 그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92</p>
<p><b>戌</b></p> <p>34년생 변수가 작용한다. 46년생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8년생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정서에 기초하여야만 편협하다는 평을 면한다. 70년생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아가야한다. 82년생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9, 45</p>	<p><b>亥</b></p> <p>35년생 활기 찬 하루가 되리라. 47년생 실호성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년생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우회해서 비유함이 더 낫다. 71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라. 83년생 길조가 부추나 기운이 자주 바뀌는 흐름이다. 행운의 숫자 : 23, 71</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